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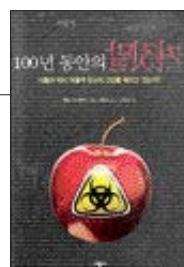
# 붓

## Books

# 가공식·약품에 대한 '가공할' 진실

### 100년 동안의 거짓말 랜德尔 피츠제럴드 지음

중국산 수입 식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미국산 소고기에서 뱃조각이 발견되는 일은 뉴스 중에서도 큰 가치를 지닌다.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는 일'을 엄중 처벌하는 것도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대변하는 현상 중 하나다. 지금 당신이 먹고 있는 것은 과연 안전한가.



'100년 동안의 거짓말'을 쓴 추적보도 전문기자 랜德尔 피츠제럴드는 격악된 어조로 경고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합성 화학물질의 위험 앞에 놓여있는지를, 저자는 책을 통해 식수는 물론 인공 감미료에서 백신까지 실험실에서 만든 합성 화학물질이 건강을 위협하는 실상을 날낱이 파헤쳐 공개한다.

저자의 어조가 격악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책을 쓴 동기만으로도 이해가 된다. 자신의 가족들이 합성 화학물질의 직접적 피해자라는 판단 때문이다. 남동생의 비만은 처방의약품과 가공식품 섭취의 부작용이었고, 관절염을 앓던 아버지가 뇌졸중을 일으킨 것은 바이오스 처방이 이유라고 말한다.

또 여동생은 자동차 사고로 입은 부상 때문에 복용한 스테로이드 주사로 인해 유선유증양에 걸려 41살에 자궁을 들어내야 했다. 이쯤 되면 화가 날만도 하다. 확고부동한 동기와 읊음을 가진데다 추적보도를 하던 기자였던 만큼 집요한 취재에 의해 책은 더 풍성해졌다 것이다.

저자가 제목에서 말하는 '100년'은 '폐 오래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책이 출간된 2006년의 딱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06년 미국 의회는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식품이나 약품의 유통을 금지"하는 '순정식약품법'을 통과시킨다. 대신 제품의 안정성을 증명하는 주체는 업체가 아니라 전적으로 정부였다.

저자는 역설적이게도 이 법이 미국의 소비자들이 음식과 약품에 대한 잘못된 믿음 체계를 형성하게 한 계기가 됐다고 말한다. 현실적으로 정부기관이 10만 종의 화학물질, 마트에서 판매되는 30만 종의 식품과 생활용품, 20만 종의 의약품 모두에 대한 인체 유해성을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각종 음식이나 약을 대할 때 "낯선 땅에 도착한 이방인처럼 행동하라"며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한다. 순수식품만큼 우리 몸에 좋은 약은 없으며 자연발생적 치유는 대부분의 조제 약품보다 더 효과적이고 저렴할 뿐 아니라 독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책을 통해 저자는 제시하는 증거는 심히 우려할 만 하지만, 대부분 미국의 사례여서 현실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 저자는 한국 독자들에게 보내는 서문을 통해 "책에 등장하는 많은 독성 화학물질들은 지리적 경계를 배려하지 않고, 공기와 물의 흐름에 따라 물고기, 야생동물, 인간의 몸으로 흡수됩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어디서 제조됐든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말했다. <시공사·1만6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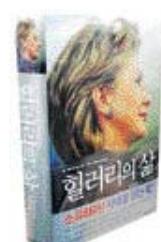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저자 랜德尔 피츠제럴드는 각종 화학물질이 첨가된 식품이나 약이 인간을 병들게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유기농 채소와 같은 자연식품이다.

### 언론인 칼 번스타인

#### '힐러리 평전' 폐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풀리처상을 수상한 언론인 칼 번스타인이 쓴 힐러리 평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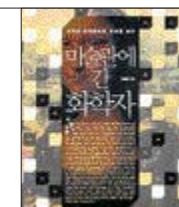
저자는 '힐러리의 삶'을 통해 내년 실시되는 미국 대선에서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 힐러리 로빈 클린턴의 정치적 일대기를 보여준다. 유명 기자답게 힐러리와 관련한 거의 모든 기록들을 살살이 조사한 것에 뛰어난다.

그녀의 동창과 친구는 물론 적(敵)들을 포함해 200여명에 달하는 주변 인물들을 인터뷰했고, 특히 작고한 힐러리의 친구 다이언 블레이어가 1992년 대선에서 선거 관련자들에게서 얻은 생생한 인터뷰 기록은 첫 공개되는 자료다. '남편에 이어 대선에 도전하는 퍼스트레이디 출신의 똑똑한 여자'로만 알고 있는 힐러리에 대해 물었다면 점들도 알 수 있게 정리했다.

<현문미디어·2만원>

# 낮 풍경 그린 웹브란트 그림 어떻게 '야경'이 되었나

### 미술관에 간 화학자 전창립 지음



바로크 미술의 거장인 웹브란트의 '야경(夜景)'은 미술사에서 손꼽히는 걸작이다. 웹브란트는 이 그림에서 키아로스쿠로 기법을 채택, 전체적인 분위기를 어둡게 하고 중심과 강조점을 밝게 처리함으로써 드라마틱한 효과를 극대화했다.

그러나 '야경'은 원래 낮의 풍경을 그린 것이다. 창작 100년이 지난 뒤 붙여진 '야경'이라는 제목은 그림의 전체적인 배경이 어둡게 변했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다.

웹브란트가 그린 낮 풍경이 밤처럼 변한 원인은 물감이었다. 그는 황토색, 갈색 등을 즐겨썼는데 모두 낱을 포함한 물감이었고, 선홍색인 '버밀리온'은 황화수은이 주성분으로 황을 함유하고 있다. 날과 황화수은은 공기 중에 노출될 경우 검은색을 띠는 '흑변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림의 색깔이 전체적으로 어둡게 변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밀레의 '만종'에서도 확인된다.

흉의대 화학시스템공학과 교수인 전창립씨는 '미술관에 간 화학자'라는 책을 통해 과학자의 시선으로 풀어낸 명화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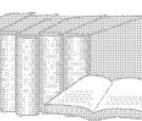
미국 출신 화가인 휴슬러는 납성분이 다량 함유된 흰색물감을 지나치게 사용한 결과 납중독으로 생을 마감한 불운한 화가였다. 그는 '흰색 교향곡 1번' '흰색교향곡 2번' 등 제복까지 흰색을 고집한 미

술사 최고의 '화이트 홀릭' 작가로 기록된다.

불포화지방산은 유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성분이다. 앤 베이크의 대표작 '아르놀피니의 결혼'이 15세기 그림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한 색채와 섬세한 봇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물감에 아마인유라고 하는 식물성불포화지방산을 섞어 썼기 때문이다. 불포화지방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한 막을 형성하고 물감에 윤기를 더해준다.

천재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학에는 문외한이었다. 그는 달걀 노른자를 유화기름에 섞어 사용했는데 같은 물감은 성분 불균형 때문에 필연적으로 심한 박력(채색층이 군열돼 떨어지는 현상)을 유발한다. 명작 '최후의 만찬'이 훼손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랜덤하우스·1만6천원>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새책

▲한순간 바람이 되어라(전 3권)=사토 다카코의 성장소설로, 2007년 일본 서점대상 1위,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신인상 등을 수상한 작품. 축구를 포기하고 소꿉친구의 권리로 육상부에 가입한 고등학생 신자가 꿈을 이루기 위해 겪는 일들이 잔잔하게 그려진다. <노블마인·각 권 1만원>



▲셋을 위한 월즈=2005년 '검은 불가사리'로 중장 신인문학상을 받은 등단한 소설가 윤이형씨의 첫 소설집. 등단작을 비롯해 '2006 올해의 좋은 소설'에 뽑힌 '파의 일요일' 등 8편의 단편소설이 실려있다. 문학평론가 우찬제씨는 "고통의 심연을 짚는 내시경 카메라" 같은 이야기라고 평했다. <문화과지성사·1만원>

▲이 시대는 개인주의자를 요구한다='즐거운 사라'의 마광수 교수가 쓴 문학비평집. 그가 몸담고 있는 학계와 지식인 사회에 대한 비판이 특이하다. 철학적 물음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이슈를 학계·종교·예술·문화·인문의 영역에서 거칠없이 꼬집어 낸다. <새빛·1만원>

▲엽기 그리스로마 신화=작가 이재운씨가 그리스·로마 신화를 재해석한 시리즈로, 4권까지 출간될 예정. 1권 '올림포스의 탄생' 편에서는 쿠데타에 성공, 신권을 장악한 제우스와 그가 재편한 신들의 세상(올림포스)을 배경으로 활약하는 12신 이야기 등을 담았다. <추수밭·1만3천원>

▲암흑관의 살인(전 3권)=1992년 제45회 일본주리작가협회상을 수상한 아야초지 유키토의 장편소설. '십자관의 살인' 등 '관(館)' 시리즈의 하나다. 바깥세상과는 단절된 호수의 작은 섬 내 저택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다. <한스미디어·각 권 1천1천800원>

▲문화예술 100과 사전=제간 리뷰의 편집위원을 지낸 문학비평가 정윤수씨가 '문화·예술 개념 정의 내리기'에 도전했다. 100가지 주제를 잡아 배열식이 아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을 택했다. 솟아나는 궁금증에 따라 읽다보면 어느 새 100가지 개념이 자리잡는다. <솔비소리·1만원>

▲격동의 시대=18년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역임한 '세계 경제 대통령' 앤더슨 그린스펀의 회고록. 재즈 음악가로 지내던 젊은 시절과 경제 전문가로 변신하는 과정, 역대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이 실렸다. 특히 한국 IMF 환율의 비화가 눈길을 끈다. <북@북스·2만5천원>

▲조선의 베스트셀勒=아주대 고양학부 이민희 교수가 조선 후기 세책업과 소설의 유행에 대해 썼다. 저자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 불기 시작한 소설 열풍과 돈을 받고 소설을 대여해주던 세책업자들의 이야기를 꼼꼼한 학문적 탐구와 상상력으로 재구성해냈다. <프로네시스·9천원>

▲영웅 고선지(전 3권)=500만부 이상 팔린 '소설 목민심사'의 저자 황인경씨의 새 장편소설. 8세기 초·중반 당나라에서 활동하며 서역 72개국을 정복한 고구려 유민 고선지의 삶과 일대기를 다뤘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TV드라마와 영화, 만화로도 제작될 예정이다. <솔지미디어·각 권 1만원>

/솔지미디어·각 권 1만원>

까다로운 토끼씨가 선택한  
**세기보청기**

난청해결전문가 세기보청기  
미세한 소리도 놓지 않는 첨단 디지털 기술로 드는 드물게입니다.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dogilbochigi.com

▶ 1588-8499 | 080-222-0100